

오늘의 기사판

8일)
▲장흥 다목적댐 준공식=오전 11시30분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장흥 다목적댐 댐홍보관 광장.
▲21C 담양포럼=오후 4시30분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현고 스님이 강사로 나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상생'이라는 주제로 강연.
▲영화감독 임권택 조형물 제막식=오후 3시 장성군 장성호 관광지.
▲지역사회복지 토론회=오후 2시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제69회 순천사랑아카데미 강좌=오후 2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임인택 가나안농학교 교 전임강사가 '역경을 딛고 일어서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16회 진도군 청소년 축구대회 개막식=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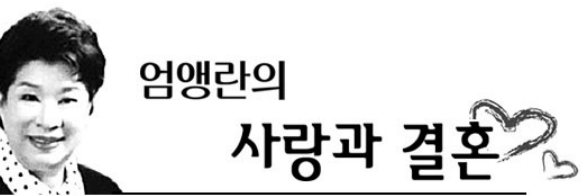
영화감독 임권택 조형물 제막식

오후 3시 장성군 장성호 관광지
전 10시 진도초등학교.
(9일)
▲제 61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오전 10시 치평동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구강 보건청 시상식 및 시민구강건강강좌). 오전 9시 구동체육관(제 16회 광주시 치과가족 체육대회).
▲제 489회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성윤갑 관세청장기 '세관의 재미있는 혁신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
▲제 8회 원도군 읍·면 노인민속경연대회=오전 10시30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성교육 인형극 교육=오전 10시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연극 생활의 발견=8·9일 오후 7시30분 공동 예술극장.
▲목요일엔 국악하마당=8일

지리산과 설악산 절경 등 30여점 전시.
▲꿈, 너에게 말을 걸다 10일전=21일까지 각화문화의 집 문화관람실.
▲광주 현대미술 특별기획 초대전=14일까지 문화갤러리.
▲무등골 예술시장 프리마켓전 '푸른6월'=13일까지 일곡갤러리.
▲5·18 관련 그림 및 사진전=30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장.
▲현대사진전 '앵글의 휴머니티'=25일까지 시립미술관 분관.

뉴스퀴즈

15.꿈의 축구 제전의 월드컵이 오는 10일 새벽 1시(한국시간) 개최국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한달간 펼쳐집니다.
개막전이 열리는 도시는 독일 축구의 성지로 불리는 곳으로, 이 곳에 있는 경기장은 알리안츠 아레나는 FIFA 월드컵 홈페이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경기장의 하나로 꼽았을 만큼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경기장입니다.
이 곳은 어디일까요?
① 뮌헨 ② 런던 ③ 파리 ④ 도쿄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이심전심(以心傳心)

요즘 대학가에 이른바 연애학개론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세상의 영원한 주제를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남녀관계! 그러나 대학강좌로서도 인기를 끄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남녀간 연애란 것이 요령과 기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은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렇다. 각각의 경험을 통해서 최소한 한 두 번씩은 느껴졌지만, 연애는 그 어떤 이론만으로는 성공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은 아이템인 것이다.
그럼 연애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마음인 것 같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만 상대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를 인식하고 느끼는 데는 오감(五感)이 다 동원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한테 이른바 '필이 꽂혔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 작동하는 부분일 수 있겠다. 그러나 '필이 꽂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어서 연애는 그리 쉽지가 않다. 물론 '필(feel)'이 중요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네 남녀 관계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기에 '인생은 고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건지도 모른다.
최근 동안신드롬이 불었다. 그 전에는 뽀뽀신드롬이었고, 또 그 전에는 열광신드롬이었다. 이 세 가지 신드롬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외모가 절대기준이 된 신드롬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외모는 중요하다. 특히나 요즘 젊은 층이 바라보는 기준은 예전보다 더욱 의

중이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대의 마음씨를 살펴보는 것이 으뜸을 차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결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고, 경제 상황이나, 상대 집안 분위기가 가정교육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너무 세세하게 이것저것 따져가며 완벽한 조건을 맞추려는 욕심을 내다보면, 혼인을 성사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조건으로 각자 나름의 중요한 기준 한 두가지만 정해놓은 상태에서 상대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의 마음씨를 살펴보는 예기다.

가장 중요한 결혼조건은 마음이 통하는 것

모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외모만이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상대를 볼 때 마음의 모양도 잘 살펴야 진정한 자기 짝을 만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외모보다 마음씨로부터 받은 감동은 훨씬 오래 가는 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마음씨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특히, 결혼을 하는 경우라면 중요하다.
결혼은 쉽게 되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되풀이되고 나면 그 후유

증이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대의 마음씨를 살펴보는 것이 으뜸을 차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결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고, 경제 상황이나, 상대 집안 분위기가 가정교육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너무 세세하게 이것저것 따져가며 완벽한 조건을 맞추려는 욕심을 내다보면, 혼인을 성사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조건으로 각자 나름의 중요한 기준 한 두가지만 정해놓은 상태에서 상대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의 마음씨를 살펴보는 예기다.
마음씨가 합착선을 통과하고 나면 나머지 조건들은 서로 탄력적으로 맞춰가는 지혜를 모으면 된다 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배우자 값을 찾을 때 한번 과감하게 기준을 단순화시켜볼 것을 제안한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마음에 드는지의 기준만으로 일단 사람을 판단해보자는 것이다. 즉, 이심전심이 되는 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요건이 충족되면, 우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횡수로는 열 번 이상, 기간으로는 두 달 이상, 가져볼 것을 권해 보는 바이다.
대표컨설턴트 엄앵란 (1588-6665)
www.daksclub.com
<닥스클럽> 대표컨설턴트

제15회 광일제 광주 전남 지역 바둑대회
패착 부른 '과목' 2회전 제 10보(148~166)
흑 박정규 5단 (KT-A)
백 김영수 5단 (호남교사회)
흑 ▲는 초읽기에 물려 일단 끊어본 것이지만 백 148을 불러 중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흑이 149부터 중앙 수습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김영수 5단은 백은 150으로 젖혔으나 흑이 151로 물자 흑 대마를 공격할 의사를 접고 152로 끊어 아래 쪽 흑 두 점을 잡고만다. 이 때 놀란만한 일이 벌어졌다. 박정규 5단이 세불리를 의식하고 153으로 끊어 욕심을 부리고 나왔다. 하지만 이 수가 김 5단의 승부욕을 자극하여 대마를 잡으러 오게 만든 대약수가 되고 말았다. 백이 156으로 끊어 오니 중앙 흑 대마가 갈 길이 없다. 백이 흑 159에 응수하지 않고 166까지 대마를 잡아서 만사휴의. 흑은 153 대신 참고의 흑 1로 지켜 끝내기예 희망을 걸어보아야 했다. 이후의 수순은 총보로 미룬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창호, 전자랜드배 4강
이창호 9단이 지난 6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8강전에서 조혜연 7단에게 193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했다.
이 9단은 이날 시종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내며 안전한 끝 마무리 행마로 조 7단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이 9단은 오는 12일 열리는 조훈현-홍성지 조의 승자와 4강전을 갖는다.
전자랜드에서 후원하는 전자랜드배 왕중왕전은 제한시간 각 10분,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지는 속기전이다. 우승 상금은 4천만원(준우승은 1천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8일(음 5월 13일 戊辰)
子 36년생 여유로운 하루로다. 48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내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60년생 적극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뛰어들어. 72년생 사기꾼이 달려든다. 주변을 정리하라. 84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다. 행운의 숫자: 03, 32
丑 37년생 丑인이 나타나서 결말을 내놓는다. 49년생 전화위복이다 갑자기 일을 알아야 하리라. 61년생 가내가 시끄럽다 인자함을 보여주라. 73년생 애인과 이성교제가 있을 수도. 85년생 잘 읽고 속상한다. 행운의 숫자: 21, 39
寅 38년생 큰 덕은 자선에 있다. 50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재주가 있으니 조심하며 지내라. 62년생 신념과 중도를 살려가며 매사에 관용을 생각하라. 74년생 욕심을 버려라. 과욕하면 결과는 대패로 연 결된다. 행운의 숫자: 05, 45
卯 39년생 부부사이에 새로운 사랑이 싹튼다. 51년생 돌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라. 63년생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75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웃기나 자신은 우울. 행운의 숫자: 08, 43
辰 40년생 시비가 생겨도 자신에게 기운다. 52년생 사비 송사 구설 분쟁이 생겨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마무리 된다. 64년생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사방이 소란하다. 76년생 매사에 조심을 다해도 불만조롭게 꼬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7, 37
巳 41년생 응호상박이니 결과는 반반이다. 53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니 선택을 숙고하라. 65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성사될 수 있으니 행동해야 하리라. 77년생 과욕만큼 잃을 수 있는 손재수나 배틀뿐이 없다. 행운의 숫자: 07, 43
午 42년생 모든 일이 침체나 종래는 안정하게 지리한다. 54년생 남의 말로 손재가 우려되니 가려서 들어라. 66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78년생 철학하게 사행하면 오히려 빠르리라. 행운의 숫자: 09, 39
未 43년생 자녀 직업으로 인해서 고역이 중중하니 마음을 다스려라. 55년생 친구 친척 간에 좋은 일은 발생하나 흥분을 조심하라. 67년생 평상일을 집중하라 발전이 있으리라. 79년생 제사가 지체되고 결과도 늦어진다. 행운의 숫자: 14, 42
申 44년생 불행하는 형상과 같고 주변이 잘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수선하다. 56년생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68년생 제사가 순조롭게 신성된다. 80년생 융합할 듯한 주변이 대고발 발생시킨다. 행운의 숫자: 12, 34
酉 45년생 새 문서가 눈물 낸다. 57년생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기회가 가속된다. 69년생 결과가 의외처럼 좋은 하루다. 81년생 예기치 못한 역습이나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행운의 숫자: 03, 41
戌 46년생 비정함 고역이 측근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58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70년생 가정과 親人의 불륜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격정된다. 82년생 짐체 속에 실리도 있다. 행운의 숫자: 11, 29
亥 47년생 불륜사가 발생할 수도. 59년생 이해있는 선금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 71년생 부부사이를 이간질 할 가까운 사람이 나온다. 83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안하게 진행된다. 행운의 숫자: 01, 40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663>
I'm so happy to hear that
그 애길 들으니 정말 기쁘네
A: If you want to smoke, an ashtray is over there.
B: No, thanks. I quit smoking.
A: Good for you! I'm so happy to hear that.
B: Yes, I'm happy too.
A: 담배피우고 싶다면, 재떨이 저기 있네.
B: 아니, 됐어. 담배 끊었어.
A: 잘 됐네. 그 애길 들으니 정말 기쁘네.
B: 그렇지, 나도 기분이 좋아.
ashtray : 재떨이
quit : 정지하다, 중지하다 (= stop), 사직하다
I'm going to quit next week.
I'm so happy to ~ = I'm so glad to ~
오하이오 니혼고 <663>
また手拔(てぬ)き工事なんでしょうかね
또 부실공사인가요
A: あの建物(たてもの)少(すこ)し傾(かたむ)いているように見(み)えませんか?
B: そう言(い)われれば、なんとなく.
A: また手拔(てぬ)き工事(こうじ)なんでしょうかね. 全(まった)く柵(こわ)いですね.
B: 工事は正確(せいかく)に誠實(せいじつ)に やってもらいたいですね
A: 저 건물 조금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B: 그러고 보니, 웬지.
A: 또 부실공사 인가요. 정말 무섭군요.
B: 공사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주기를 바라고 싶군요.
建物(たてもの) : 건물
少(すこ)し : 조금
傾(かたむ)く : 한쪽으로 쓸리다, 치우치다
そう言(い)われれば : 그런 말을 듣고 보니
なんとなく : 웬지
また : 또
니하오 쑹구워 <381>
门票在哪儿买?
입장권은 어디서 사죠?
A 门票在哪儿买?
B 售票处, 柜台, 售票处
A 售票处, 售票处
B 售票处, 售票处
A 门票在哪儿买?
B 售票处, 柜台, 售票处
A 售票处, 售票处
B 售票处, 售票处
한자 이야기 <981>
愛人(애인)
사랑할 애, 사람 인
'애인(愛人)'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공자(孔子)의 핵심 사상인 '인(仁)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애(愛)는 심(心)+치(攴: 발을 끌다)+애(爰: 符符)로, 마음이 고민으로 답답하여 발도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人)은 사람의 서있는 모습을 옆면에서 나타낸 것이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번지(樊遲)가 "선생님 인이란 어떤 것 입니까?"하고 묻자, 공자가 대답하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니라."고 하였다.(논어)
공자는 '인'을 사람에 대한 애정(愛情)으로 본 것이다. 특히 가족애(家族愛)이다. 부모가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가족애는 인간이면 누구나 거의 본능적(本能的)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다. 이 본능적인 가족애를 조금씩 보다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이성적(理性的)인 사랑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인'인 것이다. 요즘 우리 인간관계에서 결핍 증세가 드러나고 있는 동정(同情)·친절(親切)·애정·배려(配慮)이다.
애인은 사랑하는 상대방, 연인(戀人)이기도 하다.